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돌아온 가스펠가수 박종호



가스펠 음반도 150만장 이상 팔 수 있다는 기록을 세운 사람, 복음성가의 대중화를 연 박종호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는 한번 '이거다' 싶으면 그 길로 직행하는 삶을 살았다. 첫 눈에 반한 여자에게 청혼, 만난 지 1주일만에 식을 올렸다. 대학 졸업 막판에는 신학교로 직행, 여러 사람을 놀래켰고 그 신학교도 두 달 만에 그만뒀다. 좌충우돌이라기보다, 삶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할 고삐 길에서 그는 이성보다는 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거나 할까.

추천으로 들어간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던 바람에 기독교 문화에 젖어 든 그는 이후 교회라는 공간에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러다 대학 졸업을 세 달여 앞둔 어느 날, 한 교회 성가대 지휘를 도와 주러 갔다가 이른바 '성령 체험'을 한다. 이탈리아 유학이고 뭐고 다 때려 치우고 영생의 길에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들어 갔다. 서울대 성악과 81학번, 조수미와 동기 동창으로 4년 내내 실기 성적이 1등이어서 장차 한국을 대표할 테너로 촉망 받았던 그가 덜컥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 길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두달만에 신학교도 그만두고 서울시립합창단원으로 일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87년 극동방송 주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일약 유명해진다.

인생의 정점에서 있었던 4년 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직행할 때는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한 상태였다.

"뉴저지에 가서 식당이라도 하자고 아내를 졸랐지요. 결국 바이올린 하는 큰애 공부시키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했지만요."

그러나, 미국 생활 한 달만에 그에게 뜻밖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다.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간이나 혼수상태에 빠진 것. 예기치 않은 그때 일은 그를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켰다.

"평생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구나'하는 처절한 깨달음, 자책, 반성이 찾아왔어요. 지난 세월 너무 오만하게 살았던 거지요. 기독교 문화를 이끄는 진짜 일꾼은 나뿐이고 남들은 부정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황소처럼 끌고 다닌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황소예요. 나는 그저 황소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옛날엔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4년이 흐른 뒤 만난 그에게 사람들은 '편해졌다' '순해졌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는 진정 '낮은 자'의 목소리가 무엇인 지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찻집> 징크스들
【치통의 법칙】 치통은 치과병원이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한다.
【쇼핑백의 법칙】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다.
【수면의 법칙】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꼭 먼저 잔다.
【바코드의 법칙】 사면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
| 제 4권 50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2년 12월 15일 |
|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 | |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 를 헤매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처음 자원 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중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원래 자원 봉사자들은 중환자 병동에는 들어 오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나이를 확인한 다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며칠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에 모두가 놀랐는데, 다들 이 소년의 회복 원인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얼굴의 붓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의사들이 오히려 소년에게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 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그 형은 '네가 나아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 뒤야 공부에 뒤떨어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붓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의 지혜로운 봉사가 한 소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에 의한 봉사, 사랑의 헌신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네 남편감을
외모로 보지 말고
믿음과 마음을 보아라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 주시고
이 땅에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일 예배 참석을 소중히 여겨라
혼신을 다해 준비한
한편의 설교는
TV에서 하루종일 떠드는 객담에
비교할 수 없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Calvary" 다 같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 도 자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찬 송 44장 다 같이
Hymn

*성 시 교 독 55(강림절 1)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주일학교
Sunday School

찬 송 85장 다 같이
Hymn

기 도 이재영 집사
Prayer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9-14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가대 찬양 나무십자가성가대
Choir

설 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김성국 목사
Sermon

찬 송 '98장' 다 같이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다 같이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윤형권, 신영화 집사 가정. 2절:다같이)

축 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12월의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헌금위원 | 안 내 위 원 | 가족찬송 | Tea Time |
|----|------|------|----------|---------|----------|
| 1 | 김영길 | 이금선 | 박병민.이기중 | 원성호.김재연 | 송영철.양경배 |
| 8 | 박일영 | 이기중 | 사카시다.최기향 | 박재양.최현철 | 원성호.윤형권 |
| 15 | 이재영 | 이재영 | 박상옥.이금선 | 윤형권.신영화 | 이광희.이근평 |
| 22 | 최재학 | 이지영 | 양경배.김동숙 | 이광희.이규임 | 이제윤.이재영 |
| 29 | 김순자 | 정희자 | 박정자.윤한나 | 이근평.임숙경 | 임성광.장현중 |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설교준비 하다가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고3학생 깨우듯 설교준비 더 해야 되지 않냐고 단잠 깨우는 아내의 목소리에 눈을뜨니 새벽! 부부 사이에도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준비하는 동안 한밤을 같이 새워주는 아내의 인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아내도 피곤에 못이겨 Z Z Z Z).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로 우리와 함께 계셔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계절입니다

1.교우소식

*<이사> 김미재 집사 ☎ 428-5988 ☒ 143 Waterside Cre. Gulf Harbour
송영철 집사 ☎ 449-1788 ☒ 20 B Baltimore Pl. ForrestHill

2.연말당회.16일(월). 저녁 7:30

3.수요특별세미나: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예배인 다음주 수요일예배는 특별세미나로 갖습니다
*강의:박기창 집사(정신과 전문의) *주제:치매

4.2003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와 봉사자원서가 주중에 발송됩니다
다음주일에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세례.유아세례 신청: 성탄절에 베풀게 될 세례와 유아세례자는 신청용지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3세이하 <세례> 15세 이상으로 교회출석 6개월 이상

6.크리스마스 축하의 밤(24일 저녁 6:00) <장소> Pump House(Takapuna)

*준비된 초대장으로 함께 성탄의 밤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고 싶으신 가정을 초대하여서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에 잘 출석하시는 성도를 초청하시면 우리의 성탄축하의 순수함이 가리워 집니다

7.아동부 달란트 잔치. <일시> 마지막주일(29일).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 기증을 바랍니다

8.성탄축하의 밤 전체연습. 다음주일 예배 후 Hall에서 합니다. 모든 순서담당자들은 참석 바랍니다



<작한 시인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추천詩:이지영 집사)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를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은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이국에 오면 아내들이 드세진다
고요? 알고보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힘들어 함에 안쓰러워하
며 눈물 흘리는 건강함이 있습
니다. 다만 쑥스러움에 그 표현
을 이렇게 몰래 할 뿐입니다
"만약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대 향한 나의 사랑은 만년으
로 하고 싶습니다"